

황종우 장관, 2026 해양주간 개막식 참석

- 해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월)부터 10(수)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해양주간(Ocean Week)’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 대학, 해운 선사,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해양주간은 2019년 ‘해양컨퍼런스’로 시작하여 2023년 ‘해양주간’으로 개편되어 매년 추진되는 행사로 정부·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여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북극항로, 블루카본, 해상풍력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황 장관은 “해양주간은 해양의 미래를 위해 꼭 짚어봐야 할 이슈를 토론하는 권위 있는 담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해양주간이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51-773-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51-773-5221)